

## 사찰 체험 기행

### Experiences in Buddhist Temple

금산 보리암을 다녀와서

이종호 / (주)시원건축사사무소  
by Lee Jong-Ho

대구지하철 참사로 하늘마저 슬픈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던 지난 2월 22일 밤과 이튿날 새벽 나는 경남 남해 금산에 있는 보리암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의 명복을 빌고 있었다. 얼굴 한 번 스친 적은 없지만 모두가 우리 부모 형제요, 이웃일 수 있다는 결코 나와 무관한 남이 아니라는 생각에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불자도 아닌 입장에서 이러한 기도회에 참석하게 된 것은 평소 절집(사찰)의 일상생활을 한번쯤 체험해 보고 싶은 뜻을 갖고 있던 차 성지 순례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뜻이 있으면 길이 있고 원(願)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던가. 지금껏 전국의 웬만한 산과 절은 두루 다녀 보았지만 정작 산 속에 있는 절에서 먹고 자며 단 하루를 지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늘 아쉬움으로 남았다.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90% 이상이 불교와 관련돼 있고 전통건축물 또한 대부분 사찰에서 볼 수 있는 것이기에 그동안 나는 틈틈이 여행과 등산을 겸한 절집 답사를 십 수년 째 해오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껌데기를 본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지금껏 본질보다는 현상, 즉 겉모습만 보아왔던 것이다. 때로는 남들 앞에서 꽤나 유식한 것처럼 '저 지붕은 맛배지붕에 주심포식... 배흘림 기둥... 가람배치는 어떻게 하면서' 교만을 떨었다.

이래저래 나는 참회가 필요했다. 나 자신을 한 번쯤 뒤돌아 볼 필요를 느꼈다. 그리고 그 장소를 국내 4대 기도도량 중 하나인 이곳 금산의 정상 아래 절벽에 자리잡은 보리암으로 택한 것이다. 보리암과의 인연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0년 전 1월 1일 유난히도 추웠던 날 새벽, 3대가 정성을 쏟아야 볼 수 있다는 보리암 일출을 보기 위해 가족과 함께 수많은 인파들 속에 섞여 올랐다가 고생만 실컷 하고 돌아섰던 적이 있다. 어찌나 추위에 떨며 힘들었는지 아내와 아이들은 지금도 그때를 악몽처럼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작년 이맘때 또다시 일출에 도전(?)하였으나 역시 불발. 그러나 섭섭하지는 않았다. 금산의 정상(해발 681m)인 망루에 올라 어둠 속에 가려있던 보리암(해발 621m) 아래 남해도 주변 한려해상공원 바다의 비경이 서서히 드러내는 모습을 보노라니 이곳이야말로 '고요한 아침의 나라'요, 극락정토가 아닐까 싶었다.

그러니까 이 번은 세 번째인 셈이다. 내가 바라던 일출을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번만큼은 욕심을 버리고 그냥 하루동안 절 속에 폭 묻혀버릴 생각으로 집을 나선 것이다. 지난밤부터 내리는 비가 그칠 줄 모르고 계속 쏟아지는 가운데 오후 늦은 시각 보리암에 도착했다. 비는 그렇다치고 온통 산 아래를 뒤덮은 하얀 안개구름이 바다를 이루고 있었다. 그 멋진 금산의 자태를 볼 수 없고 내일 일출은 기대도 말아야 할 것 같다. 눈에 보이는 걸모습도 좋지만.

우선 일행들을 따라 대웅전에 해당되는 보광전 안으로 들어갔다. 법당안에는 향나무로 만들었다는 관음보살상이 눈길을 끌었다. 그런데 인원이 많다보니 나는 맨구석 앞자리에서 벽에 걸린 시계를 보고 절(삼배)을 하게 됐다. 차 안에서 들었던 법문테이프 중에서 “부처는 절에 있는가? 법당안에 있는가? 바로 우리들 마음 속에 있다” 라는 말이 떠오른다. 그렇다면 절을 하는 것은 부처를 위해서라기보다 바로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를 향해 절을 하든 상관없다는 것이다. 어찌됐든 자기를 최대한 낮추는 하심(下心)을 체험하는 것이리라. 신고식(?)을 마치고 우산을 받쳐든 채 보리암 경내를 둘러보았다. 가급적 이번에는 건물보다는 해수관음상과 삼층석탑 등을 관심있게 보았다. 보리암 앞 절벽 위에는 원효대사가 신라 문무왕 3년(683년)에 세웠다는 삼층석탑이 있는데, 여기에는 김수로왕비 허황후가 인도에서 가져온 부처님사리가 모셔졌다는 전설이 있다고 안내판에 써어있다. 또한 이 탑의 신비함은 탑에 나침반을 놓으면 바늘이 엉뚱한 방향을 가리키는 기이함을 통해 전해진다.

이렇게 시간적 여유를 갖고 찬찬히 돌아보니 이제야 보리암의 제 모습을 알 것 같다. 작년에 왔을 때 처음과 느낌이 사뭇 달라 약간 혼돈스러웠는데... ‘무엇이든 한 두번 보고 선불리 판단한다는 것은 경솔한 노릇이다. 보기만 해서 안 된다. 체험이 중요하다. 먹어봐야 맛을 알 수 있듯이 말이다. 백문(百聞)이 불여일견(不如一見)이요, 백견(百見)이 불여일행(不如一行)이다.

금산은 예로부터 삼남에서 손꼽히는 명산이다. 그 옛날 중국 진시황의 명을 받고 선남선녀 500명과 함께 불로초를 캐러 왔다는 서사가 들렸던 곳이라고 전해진다. 태조 이성계의 조선 창업도 금산에서 기도 후 이뤄졌다 한다. 원효대사로부터 받은 산이름 ‘보광’이 금산으로 바뀐 것도 기도를 들어준 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이름에나마 비

단(鑰)을 두르도록 하지는 태조의 뜻이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보리암 아래 좁고 가파른 돌계단으로 이어지는 내리막을 따라 150m를 가면 높다란 바위와 함께 천연동굴이 나오는데 그곳이 바로 태조께서 기도하셨던 곳이다. 곳은 날씨 탓에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다녀왔다. 하늘을 가릴 정도의 컴컴한 대나무숲길. 으스스한 기분이 든다.

서울에서는 초저녁이나 다름없는 17 : 25에 저녁공양이 있었다. 각자 밥상을 펴고 줄을 서서 배식을 받았다. 반찬은 묵은 김치국과 콩나물무침 그리고 봄동배추 겉저리가 전부다. 몸이 지탱할 만큼만 음식을 먹어야한다는 절집의 식생활치고 이 정도면 진수성찬이다.

삼백배를 하다 18 : 30부터 21 : 00까지 저녁예불에 참여했는데, 보광전에는 자리가 없어 오른편 극락전에서 방석을 깔고 앉아 기도를 했다. 이런 경우가 생전 처음인 나로서는 그저 옆 사람이 하는대로 따라 할 수밖에 없었다. 절하면 절하고 합장한 채로 허리를 숙이면 또 그렇게 하고. 용어 또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색즉시공 공즉시색... 아제야제바라제... 옴마니반메웅... 정도였다. 입을 모아 법문 외우는 소리가 마치 오케스트라 연주처럼 훌륭한 하모니를 이룬다. 이따금 땀 생각을 할라치면 목탁 소리가 내 머리를 치는 것 같기도 하고 정신이 맑아지기도 한다. 법당 안이 이제야 조금은 적응이 된 듯 한데 사실 전에는 왜 그리 어색하고 알 수 없는 공포감마저 들었는지. 그러자 나는 기도하는 중에도 호기심 많은 시선을 어찌지 못하고 내부 구석구석을 걸눈질 해 보았다. 기둥과 들보는 저리도 굵어야 하고 천장은 왜 그리 높아야만 하는가? 비록 위치는 낮지만 마룻바닥이 가장 고맙고 방석이 있어 편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그리고 보면 세상 모든 것은 제각기 다 쓰임새가 따로 있다.

잠깐 직업의식에 사로잡혀있는 동안 ‘관세음보살’을 반복하며 절을 하는 순서가 되었는데 처음에는 몇 번 하다 말겠지 했으나 계속이다. 영화 ‘달마야 놀자’에서 승려와 조폭들간의 삼천배 시합하는 장면이 떠올라 웃음이 나왔다.

나도 한 번 해보자는 오기가 발동. 옆에 있는 처사(남자 불자는 처사, 여자는 보살로 호칭)를 상대로 정했다. 염주를 몇 개씩 두른 품이 고수인 듯 하다. 나는 삼배 이상은 처음이지만 등산으로 달린 두 다리를 믿었다. 동시에 무릎꿇고 엎으려 손바닥을 위로 쳐들고 다시 두 다

리 모으고 일어나 함장한 채로 또 무릎꿇고... 같은 동작이 계속 이어진다.

말로만 들던 108배를 하는가보다. 다른 사람들은 거의 주저앉았는데 옆에서는 계속이다. 나 또한 끝까지 가보기로 했다. 또 108번. 그리고 또 다시 세었다. 결국 나와 둘만이 남았다. 얼굴에 땀이 비오듯 흐르고 온 몸은 다 젖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힘든 줄 모르겠다. 독실한 불자이신 어머니를 생각하고 가족들을 떠올리고 대구의 영령들을 생각했다. 언제나처럼 나는 제외하고. 고행인지 수행인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오로지 끝까지 해 보겠다는 일념으로 멈추지 않고 절을 했다. 성철스님을 면담하기 위해 삼천배에 도전했다가 몇 백 번째에서 쓰러졌다는 우직한 친구가 생각나기도 했다. 내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어쩌면 평생동안 했던 만큼의 절을 오늘 밤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었다. 드디어 경쟁자(?)가 멈추었다. 나 또한 더 할 이유가 없다. 얼추 계산해서 300번은 될성싶다. 내 스스로도 놀랍고 대견스럽다. 그래봤자 3000배의 10분의 1에 지나지 않지만, 정말이지 절을 하는 동안만큼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끝나고 나서는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다. 온갖 세상 시름이 사라진 듯 가벼운 마음으로 숙소로 향했다.

철아기도에도 참여해볼까 했지만 처음부터 너무 무리가 아닌가 싶어 숙소에 들어서니 6평 남짓한 방에 20여명의 처사들이 두 줄로 누워 자거나 아무 말없이 신문 등을 보고 있었다. 물론 TV는 없고 그야말로 절간이다. 5일 전부터 와 있다는 처사들은 제일 안쪽에 자리를 차지하고 누워서 꼼짝을 않는다. 이를 후면 떠난다면 말년고참이라고 예불도 드리지 않는다. 옆방의 100일기도 팀에 비하면 우리 방은 하룻강아지에 불과한데. 무거운 침묵을 깨고 내가 자랑삼아 300배 한 사실을 이야기했다. 그것을 계기로 몇몇이서 밤늦게까지 대화를 이어가고 그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조처사가 대화를 주도했다. 낮에 버스 안에서 보았을 때는 부인에 이끌려 마지못해 따라온 초보자인 듯 어설피 보였는데 그게 아니었다. 이러한 사찰 성지 순례 경험이 17년째라고 한다. 역시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되며 편견을 갖고 대하지 말아야겠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본질적인 것을 중요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잠을 자는 등 마는 등 하면서 새벽을 맞았다. 새벽예불을 알리는 종소리에 이끌려 밖으로 나왔다. 빗발은 가늘어져 이슬비로 변했는데 안개는 더욱 뿌연다. 안

개 낀 장충단 공원 아닌 안개 낀 보리암 새벽이다. 바람이 분다.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바람 앞에 대나무 숲이 서걱거리며 답을 한다.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음에도 머리는 맑다. 보광전과 극락전 사이에 있는 음수대에서 찬물 한 바가지를 들이키니 오장육부가 다 시원하다. 극락전으로 발길을 옮겼다. 그런데 이미 법당 안은 짝 차(거의 보살들로) 텃마루까지도 오르지 못하고 그 아래 시멘트 바닥에 서서 새벽예불에 동참했다. 새벽 3시 30분. (새벽 3시에 하늘이 열릴 때 하는 기도가 가장 효험이 있다고) 나중에 스님 한 분이 오셔서 법당 안쪽 가운데 비워놓은 자리로 들어가 앉으라고 해서 얼떨결에 그렸다. 처음으로 정면에서 불상과 마주 앉았다. 그런데 문득 몇 년전 문운사 새벽예불 때 보았던 젊은 비구니 스님의 단아하고 아름다운 얼굴 모습이 떠오르는게 아닌가? 아! 나는 아직 멀었다. 어쩔 수 없는 숙물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서둘러 아침공양(05 : 55)을 마치고 하루도 채 안되어 환속하기 위해 컴컴한 산길을 더듬어 내려오고 말았다.

그렇지만 나는 이번의 사찰 체험을 통하여 몸을 깨끗이 씻듯이 마음을 닦고, 양치질을 하듯이 입을 깨끗이(욕하지 말고 남을 험담하지 말라) 해야겠다는 가르침을 얻고 돌아왔다. 또한 사물이든 사람이든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갖고 판단하기보다는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면에 더 큰 비중과 가치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